

재물과 명예는 다시 찾기 쉬우나,

재물을 잃는 것은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모두 잃는 것이다.

그렇다. 재물과 명예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한번 잃은 건강은 다시 찾기가 매우 힘들다.

간염



안황우씨의 건강관리에
도움을 준 강명순
충남지부 주임
병리사

건강을 되찾아 웃고있는 안황우씨

건강은 다시찾기 힘들다.

그 병들고 험한 길을 1년여 동안 걸어온 안황우씨 (39세 · 대전시 중구 탄방동 주공 APT 103동)는 평범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장 큰 소망은 자신의 가정을 행복하게 꾸미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지난날의 생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건강에 대해 고생해온 1년여 시간이 저에게는 어떠한 위협에도 부딪칠 수 있는 자신감을 만들어 주었다』고 지나간 시간들을 추억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하는 아량도 생겼다고 덧붙이면서 씩씩한 미소를 짓는다.

가족과 함께 실시한 건강검사에서.

『어느날인가 가족들을 전부 대동하여 동네근처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에서 건강검사를 실시기로 집사람과 결정을 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저에게 있었지요. 몸이 쉬피곤해지는 이상현상이 자주 나타나서 한번 종합검사를 받고자 했던 것이지요.』 항시 가족 건강에 대하여 지나치리 만큼 자상하다고 옆자리에 같이 한 부인 김선애씨(34세 · 주부)가 그의 성격을 알려준다.

『모든 가족들의 결과는 정상인데 저만 간염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났다는 결과통보서를 받았지요. 그리하여 충남지부 건강관리협회에 다시 찾아가 간염검사에 대한 상담을 의뢰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으신 강명순씨가 자세히 설명해주고 간기능검사를 권유하더군요.』 강명순주임병리사의 도움이 컸다고 강조하는 안황우씨.

『저는 당시에 안선생님께 정확한 상태를 알고 싶다는 말을 듣고 수치로 나타나는 간기능검사를 권유했지요.』 평소 1인2역의 일을 하고 있는 재주꾼 강명순주임병리사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 해준다.

검부터니는 자신의 간기능 수치.

씩씩한 미소를 짓는 안황우씨는 『그당시 간기능수치가 GOT200 이상, GPT

200 이상이라는 엄청난 결과통보서를 받았읍니다. 정상인 경우 GOT3~45, GPT 8~40이라는 것을 알고, 저는 당황하고 겁이 벌컥 나더군요. 그리고 그 시간 이후로 고민의 나락에 빠지기 시작했읍니다. 밤이 되어도 잠이 안오고, 식욕이 떨어지는 환자생활에 입문 한 것이지요.』 수려한 마스크와 깨끗한 이미지를 풍기는 안황우씨의 미소에서 당시의 고통이 투영되는 것 같았다.

한달만의 병상생활을 청산하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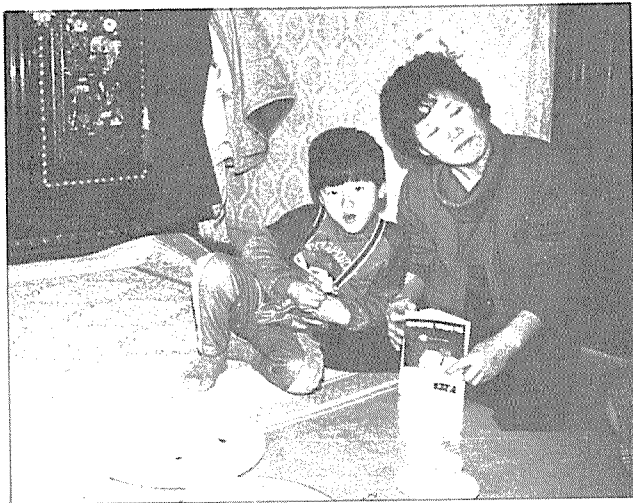
『저는 병마의 세계에서 탈피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읍니다.

일단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기로 했지요. 여러곳에서 진료를 잘한다는 용두동에 소재한 개인병원을 찾아 갔었읍니다.

결과가 GOT260, GPT290이라는 설명을 듣고 수치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커지더군요, 그만큼 저의 간세포가 파괴 되고 있다는 수치상의 압박감이지요. 병원에서는 입원을 권유했으나 마침 아는 사람을 만나 집에서 자가치료를하기로 결정 했지요.』 경제적 부담도 커서 병원생활을 하지 못한 점을 수줍은 듯 밝히면서 집에서의 한달간 치료는 영양제주사와 약물복용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했다고 말한다.

정상으로 돌아온 듯한 생활 -

한달동안의 편안한 생활을 해서인지 몸이 가벼움을 느끼고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다는 안황우씨는 『병원에서 모든 기능이 정상으로 되돌아 왔으니 이제는 걱



부인 김선애씨는
아빠의 자가치료는 저의
집안에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병이
고급병이라 매일
고단백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때문에
가게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지요.

정을 하지 말고, 무리한 생활은 조금씩 피하라는 말과 함께 정상적으로 되돌아 왔음을 알려 주더군요.』 무엇인가 뒷말을 잊지 못하는 여운을 남긴 안황우씨는 『그후에는 건강에 대해 신경을 안쓰고 평상시의 생활은 계속했지요. 그동안 자신 때문에 축이난 가계부를 보완하려고 일을 더욱더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그는 자상한 일면을 느끼게 한다.

행복한 가족과의 시간은 잠시뿐 -

『정상적인 생활이 한달여쯤 지났을까요. 다시 몸에 이상이 있음을 알고 제일 먼저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받았읍니다.』

『그결과 1,400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타났지요. 지나온 한달동안의 생활은 병마가 계속해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은 병마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졌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것 이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최악의 상태 -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기는 최악의 상태까지 제품이 끌려가더군요. 일단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하고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20여일 동안의 병원생활을 한후 퇴원해서 집에서 자가치료를 했습니다.』 병원생활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부담이 커서 퇴원을 하여 자가치료를 결심 했다는 안황우씨.

가계부의 적지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고 -

『아빠의 자가치료는 저의 집안에 가장 큰 걱정이었어요. 병이 고급병이라 매일 고단백질의 음식을 섭취해야 되기때문에 가계부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줄어들었지요.』 눈에 눈물이 맺힌지 말의 끝을 확실하게 맺지 못하는 부인 김선애씨.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먼저 생야채 즙을 잡주세요. 그리고 소고기와 고단백질의 음식으로 된 아침을 잡수시고, 또 점심때 야채즙, 그리고 잉어를 푹고아서 잡수지요. 저녁때에는 건강식품, 당두, 밀치가루, 생수 등을 복용하시지요.』 규칙적인 식단메뉴를 짜서 남편을 보살피는 김선애씨는 오래된 불교신자로서 부처님께 남편의 건강에 대해 기원하는 것도 자신의 생활에 일부분이 됐다고 말한다.

일단은 수치에 대한 정신적 부담을 탈피하자.

『강명순씨가 저희 집에 자주와서 아빠의 건강에 대해 많은 조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일단은 간기능수치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을 빨리 탈피하라고 조언을 해주시더군요.』 말을 하는 부인 김선애씨의 손은 강명순주임병리사의 손위에 얹혀 있었다.

『병은 치료보다도 정신적인 부담감을 빨리 잊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강명순 병리사의 안경님어로는 재치있는 눈빛을 볼 수가 있었다.

건협 충남지부에서 지속적으로 받은 정기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에서 한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다. 일단은 모든 일을 재쳐놓고 건강에 대해 신경쓰기로 했지요.』

때로는 병상수기를 읽고, 간염에 대한 의학책들을 읽으면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찾았다는 안황우씨는 부인 김선애씨의 정성은 너무나도 지극했다고 부인의 칭찬을 아끼지않는 애처가이기도 하다.

마침내 질병과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 그사람.

『영감이라는 것이 있지요. 제자신이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상쾌한 기분을 느꼈지요. 허나 병원에서 검사는 받고 싶지는 않았어요. 조금의 불안감 때문이지요. 그런 불안감을 안고 10월에 건강관리협회 충남지부에서 검사를 받았지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상태로 호전되가고 있는 판정을 받고 조금은 허무했다』는 그는 지금은 아무런 감정은 못느끼고 다만 건강의 중요성을 확실하게 인식되었



원시영 관리의사는 모든 사람들은 간염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혀 말한다.

다고 말한다.

등산을 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가끔 등산을 하고 약수를 마시면서 활기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간염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까먹은 돈을 생각해서 쉽사리 사업은 구상을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18평의 자그마한 아파트 청결함을 자랑이라도 하듯이 창문을 통해 햇빛이 스며든다. 그 햇빛속에 있는 안황우씨와 부인 김선애씨. 마치 따스한 겨울 햇빛이 그들 부부를 감싸주는 것 같다.

규칙적인 생활, 균형있는 음식섭취가 중요합니다.

안황우씨의 투병생활을 듣고 이러한 질병을 사전에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자 충남지부 공중보건의 원시영 관리의사(27세)를 방문했다.

- 간염은 대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 납니까? -

『일단 쉽게 느낄수 있는 것은 몸이 쉽게 피곤해지고, 무기력한 증상과 소화 가 잘안되는 증상, 헛구역질을 자주하는 증상등을 나타내지요.』 모든 사람들은 간염에 대한 정신적인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혀 말한다.

- 한때 안황우씨는 간기능수치가 1,400 이상을 웃돌았는데 이런경우는 어떤 상태를 의미합니까? -

『수치적인 개념으로 봐서 간세포가 많이 파괴되었고 간에 염증이 많이 번져 있음을 의미 합니다. 또한 그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발전되며 간경화, 간암까지 확산 되어 생명을 잃는 수도 종종 있지요.』

영양분의 공급은 간장병치료에 매우 중요합니다.

- 안황우씨 경우 부인 김선애씨의 철저한 식이요법으로 좋은 효과를 봤는데 식이요법에 대해서-

『옛날에는 간장병에 지방과 단백질을 못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충분한 영양분의 공급이 간장병의 치료에 매우 중요함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전에 나쁘다고 생각했던 단백질이 간장 장애의 회복에 아주 요긴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단백질이 결핍된 식사를 하면 간세포가 망그러지고 또 망그러진 간세포의 회복이 잘 되지

김치수 사무국장은
전직원들이 하면된다는
노력과 생각으로
정진하여 협동심과
인화심으로 뭉친
충남지부를
만들 것입니다.



않습니다. 비단 단백질뿐 아니라, 지방, 당분등 3대 영양소의 어느것이든 결핍 되면 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또 비타민 미네랄 등의 영양소도 결핍되면 안됩니다』 차분하게 설명하는 원시영관리의사는 평소 자신의 일에 대해 책임감이 매우 강한 인상을 준다.

創發具現으로 선진지부 전통확립의 해로

한편 김치수 충남지부사무국장은 87년의 청사진을 이렇게 말한다.

『충남지부는 87년을 맞이해서 창발구현으로 선진지부 전통 확립의 해로 결정했습니다. 전직원들이 하면된다는 노력과 생각으로 정진하여 협동심과 인화심으로 뭉친 충남지부를 만들것입니다.』라고 충남지부 청사진을 밝힌다. 『충남지부 앞으로의 사업은 행정조직의 활용으로 집단검진을 증대시키고, 사업장근로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사사업을 실시 할 예정이며 농한기를 이용한 조기사업을 추구 할 것이라』고 덧붙여 말하는 김치수사무국장은 오늘날 충남지부가 안정된 자리를 구축하기 까지의 장본인이기도 하다. 평소 과묵하고 매사에 꼼꼼한 김국장의 얼굴에서 충남지부의 밝은 내일을 엿볼 수 있는것 같았다. <오일민글>